

전디고 참고 기다려라



혜운 스님은 늘 불자들에게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불자가 되어 나와 세상을 맑게 하자"고 당부한다.



혜운 스님

(제주 국청사 회주)

여러분과 인연을 같이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이 법좌에 올라왔습니다. 은스님이신 동산 스님께서 항상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사바세계니라. 사바세계라고 함은 감(慳)인(慳) 대(待) 즉,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세상이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중생들은 감, 인, 대 할 줄 알면 반드시 편안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견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갖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참다운 불자가 돼야 합니다. 다. 오늘은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참다운 불자가 되기 위해서 탐, 진, 치 삼독을

버려야 되겠기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약경유구(若鏡有垢) 색상불현(色相不現)
약심유구(若心有垢) 불신불현(佛身不現)

거울에 때가 가 있으면 색상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 때가 끼어 있으면 부처님의 몸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마음먹기 따라 행-불행 결정

때는 바로 탐, 진, 치 삼독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각장애인인 외나무 나리를 건너갑시다. 발을 헛디뎈 넘어뜨리기에 떨어졌는데 나룻가지를 잡아서 용케 살았습시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습시다. 지나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살피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장님은 "손을 놓으면 넘어뜨리에 떨어져서 죽겠어요." 하면서 손을 놓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러면 붙잡고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 광경을 본 지나던 스님이 "손을 놓으세요. 밑에는 모래바닥이고 높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몸이 상하지 않을 테니 마음 놓고 놓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밑을 들은 장님이 손을 놓아 살게 되었습니다. 손을 놓으니 살긴 살았는데 두 시간을 붙잡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붙잡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소유욕, 집착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고통스럽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미국 보스턴 주에는 어업에 종사를 해서 아주 세계적인 부자가 지은 별장이 있습니다. 어머머하게 큼니다. 부자가 8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대리석과 좋은 목재를 모아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집에서 산 기간은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 살다 죽으니 지나가 없어 주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광지로 개방했습니다.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굉장하다'고 감탄을 하다가 8년 동안 지어서 겨우 8개월 살다 죽었다는 사연을 알고 나면 "8개월 살려고 8년 동안 인생을 낭비해!"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자신의 어리석음, 욕심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욕심의 불은 공덕의 숲을 모두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안분지족, 즉 자신의 분수를 알아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술천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머무르는 곳입니다. 도술천은 지옥천이라고도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세계라는 뜻이죠.

욕심의 불, 공덕의 숲을 찌터미로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게 태어납니다. 욕심이 적으면 유쾌해지고, 행복한 것이니 만족할 줄 알면 부귀해져서 천민 속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살리라 하고 옛 어른들은 일러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계승을 한번 열어 봅시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



외할머니와 사루비아

외할머니를 떠올리면 언제나 자그맣고 바짝 마른 체구에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쪽지고, 눈부시게 새하얀 모시적삼을 입고서 화사한 꽃발을 살피시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해 늦어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젊어서 한창 매력에 넘칠 때에는 밖으로만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병든 노인이 되어서야 지어미의 곁에서 세상을 마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장례 내내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초연하고 담담하게 조문객들을 맞으셨습니다. 외할머니의 모습에서 진한 슬픔이나 신세 한탄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깥의 정인(情人)에게 다 전번된 지아비가 무에 그리 그리워 눈물바람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지아비라 해도 무슨 정이 남았겠습니까? 과부 아닌 과부로 자신들을 키워주며 모진 세파를 홀로 헤쳐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데 애틋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머칠이 지나 왓자하던 가족들과 문상객들은 다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에는 고즈넉한 침묵이 다시 들기 시작하였고 예전과 다

었습니다. 얼마나 고왔던지 그 나라의 왕이 이 아이가 크면 자기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인들이 이 아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리라 예언했습니다. 국왕은 높은 설산 중턱에 살고 있는 백조를 불러 여자 아이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도록 했습니다.

여자 아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백조 동지에서 백조가 날마다 중중에서 날라다 주는 밥을 먹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수의 상류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한 청년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다 천신만고 끝에 백조의 동지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아름다운 소녀를 보자 찻눈에 사랑에 빠져 버렸고, 소녀는 백조에게 들끓는 청년을 숨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소녀는 청년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결국 일의 전모가 밝혀지자 왕은 그 소녀를 아내로 삼으려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구잡비유경).

부부의 연이란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를 부린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와 내 배우자는 얼마나 기막히고 절묘한 인연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부부들은 아예 그러도 쉽게 헤어

마음먹은 대로 안되는 절묘한 인연 '부부' "같은 신앙·계율 받고 함께 지혜 키워라"

름없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마침 열려 있던 대문을 살짝 밀고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좁다란 나무 의자에 걸터앉아 새빨갭게 빛나는 사루비아를 바라보며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뉘어내시던 외할머니를...

처라 후련하다며 기지개라도 꼭 퍼실 줄 알았었는데 지금 저 눈물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부부라는 게 뭐냐?" 외할머니의 실무였든 늦어봄의 따가운 태양을 받으며 농익어가는 사루비아의 붉은 빛깔과 어우러져 어린 저의 가슴에 이런 물음을 새겨주었습니다.

정말, 부부라는 게 뭐냐? 부부의 연이라는 게 뭐기에 그토록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꼭 한 사람만 제 눈에 들어오게 제 마음을 태우다 죽을 때까지 함께 지지고 볶는 것입니까?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마음과 정으로 엮인 사이이다 보니까 사랑이 큰 만큼 미워하는 힘도 참 유별난 것이 부부지간입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참 아름다운 여자가이와 있

지려 하는 걸까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갈라서고, 너무 일찍 만났다고 헤어지고, 평생 원수였었다며 갈라섰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으면 슬픔도 괴로움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고 행복할 때만 함께 살다가, 힘들고 지치면 헤어지는 것이 부부의 도리는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긴 거역의 복권에 당첨되었는데도 헤어지는 부부나 연인도 있더군요.

"부부는 같은 신앙을 지녀야 한다. 같은 계율을 받고 똑같이 보시하고 똑같이 지혜를 키워야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함께 지내고 내생에서도 서로 만날 수 있으리라." (증지부 경전)

평생을 해로한 노부부를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백년해로의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그날 외할머니의 아원에게 너머로 퍼어있던 사루비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꺼지지 말아야 할 부부의 사랑을 저에게 일러주려고 그토록 새빨갭게 빛났던 것만 같습니다.

■ 이미지(동국역경원 역경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에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음질, 실범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장 김민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지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아 40°C 급냉·직송하여 냉장상태에 보관됨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황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던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아머,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동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체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검지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강 속에는 이끼처럼 속면이 쌓이고 관절 사이 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원연비타민과 미네랄, 수렴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축시킨 살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흥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극락도·지옥도·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터삼존을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 대형주처장안비
- ▶ 점심공양 가능
- ▶ 입장료 무료

◆ 주위 명소 : 흥천은전, 천년고찰 수타사

● 찾아오시는 길

연화사

●매일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김원도 흥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화사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9월22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고승초청 법회에서 법문하는 혜운 스님.

육조 스님의 계승입니다.

육적불토(欲淨佛土) 선정기심(淨淨其心) 수기심정(隨其心淨) 즉불토정(則佛土淨) 약능제득(若能制得) 삼종독심(三種毒心) 삼취정제(三聚淨戒) 자능성취(自能成就)

이는 만약 스스로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중생도 청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에도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중생도 더러워지고, 마음이 맑으면 중생도 맑아진다' 하였고, 또 '불토(佛土) 혹은 가정을 맑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맑게 하라. 마음이 맑아지면 불토 역시 맑아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의 독한 마음만 다스릴 수 있다면 삼취정제는 절로 성취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곧 가정이나 사회가 행복하고 깨끗하길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따라 극락도 생기고 지옥도 생기는 것이니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그 가정이나 사회, 직장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극락세계도 보고 싶고 지옥세계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지옥과 극락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 줍니다. 제자가 지옥세계에 가보니, 지옥에도 없는 게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가 이마가 까진 사람도 많고 머리가 까진 사람도 있고 눈도고

내마음 맑으면 중생도 청정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요. 그리고 팔과 손이 뻗뻗해서 팔과 손을 폼다 구부렸다 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팔과 손을 구부렸다 펴는 게 안 되니 씻을 수도 없고. 그러나 영광인 것이죠. 식사시간이 돼 컵이란 밥그릇에 담긴 밥이 한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나 팔이 구부러지지 않으니 주먹밥을 만들어서 공중에 띄워서 받아먹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던진 것이든 남이 던진 것이든 서로 먹으려고 야단들을 하니 이마와 이마가 부딪쳐 깨지고 상처가 나서 물결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웃지만 우리 사는 곳이 지금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극락세계에 갑니다. 그곳에 가보니 아까와는 달리, 하나같이 아주 예쁘고 머리도 단정

하게 빗고 웃도 단정하게 입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지옥하고 똑같이 짧은 뺨뺨한 겁니다. 극락에도 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뻗뻗한 팔로 상대방에게 서로 먹여주려만 맙습니다. 어떻게습니까?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까닭이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우리의 고통은 욕심, 소유욕,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며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극락에 고통이 있을 수 없겠지요? 자

늘 긍정적인 마음을 내라

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이 철철 넘쳐나는 세상이 바로 극락입니다. 상대를 나처럼 생각하고 아껴주면서 먹여주고, 쓰다듬어주는 마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배도와 배탁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음의 중요함과 욕심 없이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등이 붙어서 태어났는데 등을 갈라 살점이 많은 이를 형 배도라 했고, 동생을 배탁이라 했습니다. 일곱 살이 되니까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외삼촌댁에서 신세지면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박복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일행 선사가 와서 보니 두 형제 박복한 상이 어리고 입을 봐도 뒤를 봐도 거지상인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저들을 당장 내보내라. 전생에 복을 못 지어서 거지팔자니 내보내지 않으면 당신도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엿들은 배도, 배탁 형제는 외삼촌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나 동상을 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가 의논을 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빌어먹기만 하면 내생에 또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 솥을 구우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자" 하고는 산으로 들어가 3년의 노력 끝에 집이 좋은 솥을 굽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구운 솥이라고 하면 인기가 많아 금방 팔렸는데 두 형제는 5일장마다 일곱 집은 돈을 받지 않고 대문 앞에다 솥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솥을 받은 사람이 고마우니 먹을 것, 입을 것을 대문 앞에 내놓아 보답을 하면서 배도 배탁 형제의 보시행이 전국에 소문이 짝 퍼졌어요. 결국 외삼촌 귀에까지 들어가 외삼촌이 찾아와서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일행 선사가 오더니 배도는

어린이·청소년 포교 남다른 열정 쏟아

혜운 스님은 1941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스님은 가난하던 시절 공부를 하고 싶어서 55년 제주도 사라사로 출가했다. 배삯만 챙겨주고 부산으로 온 스님은 범어사를 찾아 무임으로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서 동산 스님을 만나 볼 수 있었고 57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았다.

해인사, 은해사 강원을 마치고 제주도도 공파사 주지, 관음사 주지 등을 역임한 스님은 85년 국청사를 창건하고 회주로 주석중이다. 제주도 국청사에는 2백 명의 아이들이 도량에 가득하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국청사 회주 혜운 스님이 마야유치원, 국청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음사 연화어린이집 원장을 지낸 혜운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 내년부터 2학 3일 일제의 어린이수련교실을 열 예정이다. 3천 평 대지위에 1천 평에 달하는 도량 불사를 '죽을 고생' 끝에 회향했지만 아직도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보안을 위한 개축 불사를 발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통한 사회복지사업과 국청사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불교 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승을 할 상호이고, 배탁은 대장부가 될 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형제가 "몇 년 전에는 밥이 먹을 팔자라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고 역정을 내니 일행 선사는 "아름다운 공덕이 너희들 팔자, 상호를 바꿨다"며 칭송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지금의 가난도 내가 마음 바게 배 풀고 아름다운 마음을 자꾸 쓰다보면 어느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을 하는 마음과 말보다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이 마음만 잘 쓸 것 같으면 바로 성불하리라"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미꽃을 보고 "하필이면 예쁜 꽃에 이런 가시가 달렸을까?"하고, 어떤 이는 "보잘 것 없는 가시 나무에 예쁜 꽃이 피겠네"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

백번 참으면 근심걱정 사라져

인 마음을 내면서 수행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세 번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도 세 번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아픔을 주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백번 참으면 근심걱정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정진으로 탐, 진, 저 삼독을 여의고 작은 실천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참 불자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법연 스님의 스님이 이야기

원법 스님 (上)

원법(元法)스님은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이 다. 원로회의는 사회로 말하면 상원(上院)격으로 종도들의 정신적 사표이며 지도자인 종정스님을 추대하는 등 종단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원로스님들의 결의기구다. 원로회의 부의장중 되던 여러 가지 면에서 위상을 찾고 법랍을 따지면서 잘 모서지기를 은연중에 바랄 수도 있지만 스님은 전혀 그런 면이 없이 아주 소탈하시다. 스님은 종단의 대표적 이론가며 문필가요 교육자로 명망이 높았던 용봉(龍峯)스님께 건강하여 집안의 어른 즉 나의 사숙이 되었다.

연세도 칠순이 넘고 법랍도 많으신 데다가 사숙이니 어린 내게 조금 가볍게 대해도 되는데 언제나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이 변함없이 송구스러



그림·문병성

울 때가 많다. 지난해에 태고종 종정스님 추대법회를 준비하며 소임을 나누어 맡았는데 재무구조가 열악한 총무원의 형편상 많은 예산을 들일수가 없어서 지리배치나 안내, 다과를 접대하는 다각실(茶角室)을 맡길 단체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총무원직원들이 차 삼부름이나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행사날짜가 코앞에 다가와서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왜냐하면 종장이신 혜초 스님께서 해인사 말사인 청곡사에서 출가하여 종단과 사회교화의 큰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청운을 품고 서울에 오셔서 당시 큰스님들이 많았던 법륜사에서 오로지 출가 수행자의 외길을 올곧게 가신 분이려 종단 내외에서 오십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때 원법 스님이 뇌리에 떠올랐다. 원법 스님은 시(詩), 서(書), 화(畵)에다가 차(茶)와 음악(音樂)까지 조예가 아주 깊었다. 신도들을 잘 가르쳐서 다도회(茶道會)를 만들어 활동하도록 잘 지도하고 계셨다. 지난 여름 전북 완주에 있는 봉서사에서 종단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온생명 사상 실천 수행영선재'를 지낼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법 스님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도들과 함께 차 달일 도구

일체를 준비해 오셨다. 웬일이라고 여쭙었더니 종단에서 여법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오면서 생각하니까 무언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에 있기에 이번 추대법회때도 결례를 무릅쓰고 다각실을 맡아주시고도 부탁을 드렸다. 스님은 흔쾌히 수락하셨고 새벽같이 오셔서 하루 종일 신도들과 함께 그 많은 내민들의 접대를 도와주셨다. 행사가 끝나자 서둘러서 대헌보 은장사로 내려가셨다. 변변히 인사를 드리지 못해 나중에 전화를 드렸더니 간단하게 말씀하셨다. "쓰입새가 있으니 대단히 고마운 일이에요. 또 쓰입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 주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쓰입새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다행스럽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수고했어요."

한 번은 총무부장 월해 스님의 속가 어른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었는데 고인의 먹이 남아있던 문상객들이 아주 많아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우리 출가자들은 이런 복잡거리는 데를 생리적으로 싫어해서 으레 하는 인사정

詩·書·畵에 두루 조예 깊어 행사맨 굿은 일 '척척'

도만 나누고 일어서려고 하였는데 원법 스님이 만장을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도와도 드리고 구경도 하고 즐겁게 바라보았다. 한 장 한 장 써 가시는 데 그 활달한 필치가 정말 자유로웠다.

만장을 다 쓰고나니 주위에 둘러있던 스님들이 큰스님의 글씨를 경학으로 삼겠다며 글씨 써 달라고 요청하니 "어허! 이게 또 옥력을 짓을 하네요." 하시면서 다시 붓을 집었다. 그러면서 스님들에게 원하는 경구(警句)를 부르라고 하여 그대로 적어 나갔다.

나에게도 무슨 글을 쓰면 좋겠느냐고 물어서 태고 스님의 계승인 '뒷산에는 꽃이 피어 비단처럼 붉고 앞 시내에 흐르는 물은 쪽빛처럼 푸르다(山開花紅似錦前溪流水綠如藍)'을 읊었더니 "역시 법연 스님이야!" 하시며 좋아하셨다.

이번에는 신도들이 몰려들어 "저도요, 저도요" 하면서 글씨 써주기를 원하니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셨다. 그러다 보니 밤 열두시가 훌쩍 넘어버렸고 다음 날 홍성애에 있는 절에서 법회가 있었던 나는 서둘러 인사드리고 홍성으로 향했던 경향이 있다.

스님은 출가사찰인 해인사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흥류동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옛 스님들의 계승을 읊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추억처럼 뇌리에 남지만 그 시절에는 눈물을 몇 말이나 머금은 절절한 고해의 체험이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계속)

■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Advertisement for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불전함' (Electronic double-door triple alarm bell shrine).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shrine and text highlighting its security features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서원기전' at 043-647-2378.

Advertisement for '조은칼라지빙공사' (Jo-eun Calarajibong Construction). Focuses on '새는 지붕' (New roof) services, offering professional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Contact: 080-011-8504.

Advertisement for '동해사' (Donghaesa). Promotes a '법비기간' (Bunbi period) from Oct 12 to Oct 20. Features images of the temple and text about special services and events. Contact: 033-672-2900.

Advertisement for '원적외선 사찰 난방' (Infrared radiation temple heating). Includes diagrams showing 'Forced Air' and 'Radiant Heat' systems. Lists benefits like energy efficiency and health. Contact: 021538-8489.